

BJFEZ MAGAZINE

Hello BJFEZ

—
2024. 07. Vol. 93



Content

Cover story

- ① 글로벌 항만, 부산항
- ② 신항만 야경
 - (제 3회 BJFEZ 홍보사진 공모전, 박숙연)
- ③ 꺼지지 않는 불빛
 - (제 3회 BJFEZ 홍보사진 공모전, 이성우)



<BJFEZ>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bjfez.go.kr



4675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32로
38-26(송정동)
TEL. 051-979-5000, 055-320-5000
www.bjfez.go.kr

Hello BJFEZ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매거진
2024.07 | 통권 93호

발행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발행처 투자유치부 유치전략기획과
발행월 2024년 7월
기획·편집디자인 소나기크리에이티브(주)



▲ Leaders Interview

- 04 세계적 물류 비즈니스 중심 실현에 전력
 -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 BJFEZ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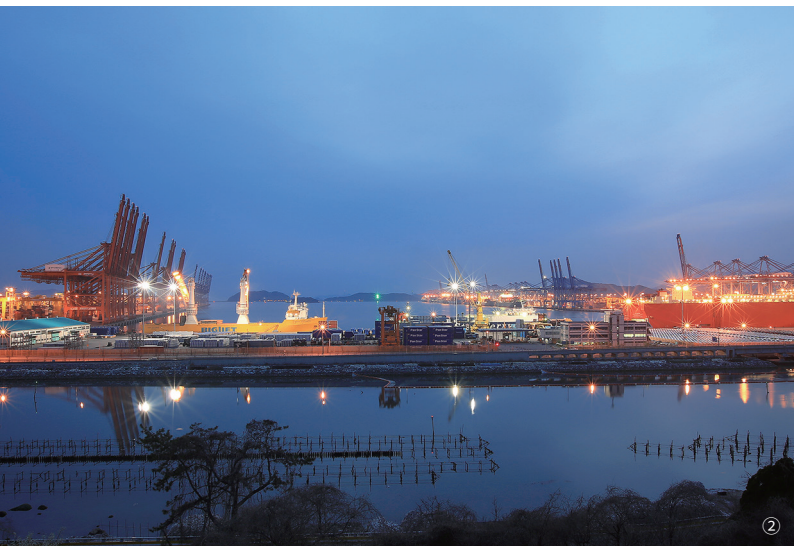
- 0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사업체 실태 조사

▲ BJFEZ Focus

- 08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글로벌 기업·인재 몰려...
기반 시설 조성 '착착'
- 10 대한민국 경제의 新성장축으로 도약!
- 12 BJFEZ,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

▲ BJFEZ Episode

- 1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매출액·수출액 대폭 증가
- 1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2조 원 규모의 와성지구 개발 순항
- 16 「BJFEZ 복합물류 활성화 전략품목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17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제14회 국제물류산업대전 참가



▲ Grow up

- 18 Tri-Port
- 20 2029년, 남부권 글로벌 관문공항
가덕도신공항이 조성됩니다
- 22 BJFEZ 칼럼 : 미래형 물류·비즈니스 허브
육성을 위한 목표와 과제

▲ BJFEZ Success

- 24 쿨스엔씨(주)

▲ BJFEZ Partners

- 26 이명근 (주)성우하이텍 회장,
이수태 (주)파나시아 대표, 제15회 동명대상 수상
(주)BGF 리테일, 부산 신규 물류센터 투자 결정
- 27 (주)쿠팡, 쿠팡이콘 형성을 위한 전국 물류센터
확장 계획 추진
- 28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1,600억 규모의
물류센터 들어선다
- 29 (주)동원로엑스냉장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다

▲ Youth Interview

- 30 동북아시아 물류의 중심지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다

▲ Daily BJFEZ

산책로

- 32 신호공원
- 33 보람공원

원두카페

- 34 다운나루
- 35 카페 인더문

▲ Invest BJFEZ

- 36 BJFEZ 잔여 부지

세계적 물류 비즈니스 중심 실현에 전력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
세계 최고 물류·비즈니스 중심 실현!
착실하게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Leaders
Interview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 20주년 기념식

Q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올해 개청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간의 성과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04년 개청 이래 세계 2위의 환적항이자 세계 7위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하는 부산항 신항을 중심으로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산업과 함께 복합물류 산업의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명실상부 남부권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심으로 거듭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년간 44억 4,200만 달러의 외국 자본을 유치하여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구역 내 5만 8천여 명의 근로자와 함께 남부권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산업부 평가 2년 연속 S등급을 받는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콜드체인, 글로벌 배송센터(GDC)와 같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복합물류산업과 의료바이오산업 등 새로운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동북아 최대의 신산업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Q 이와 같은 성장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첫 번째, ‘유리한 지정학적 여건과 탁월한 인프라’입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육상화물과 태평양 해상화물이 교차하는 유리한 지정학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물동량과 환적화물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항만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 그 어떤 지역보다도 성장 잠재력이 큰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2029년 가덕도 국제 신공항과 2040년 21선석 규모의 진해신항이 추가 건설되면 글로벌 항공물류와 해상물류가 복합되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전문성과 적극성을 갖춘 직원들의 노력입니다. 그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입지나 도로 등 기반 시설들을 적기에 잘 공급해 왔고, 또한 산업구조의 흐름을 잘 읽어내 종전의 기계·제조산업 중심에서 첨단제조·복합물류·바이오산업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 맞춰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신산업 육성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장의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Q 비전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이제 국제공항과 대규모 허브항만을 갖춘 세계적 관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있으며,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영하고 투자하며 국제적 인재를 모을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해 남부권 경제 중심도시, 대한민국 국토 균형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실질적인 기업 지원을 위한 세밀한 정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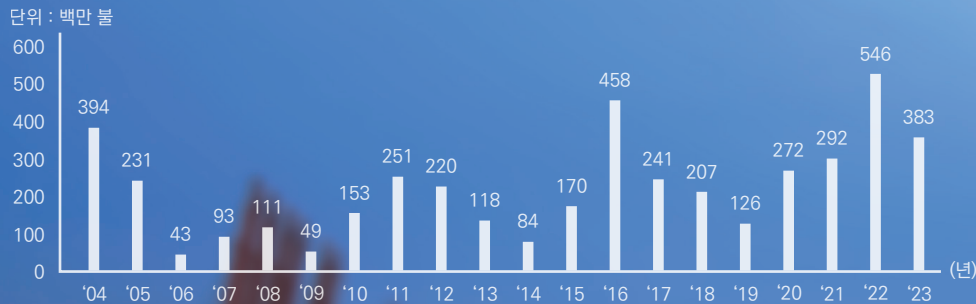
‘세계 최고 물류·비즈니스 중심 실현!’이라는 비전에 맞춰 착실하게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사업체 실태 조사

외국인직접투자(FDI) 누계 실적

▶ 44억 4,200만 달러(USD)

기준 : 2004년~2023년



입주사업체 수
1,954개

항만, 항공, 철도의 최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수
57,972명

부산경남 지역 내의 경쟁력 있는 인력을 확보하여 지역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이러한 핵심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사업체 실태 조사

조사기준일 2022년 12월 31일

조 사 대 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중 고용규모 5인 이상인 사업체

조 사 규 모 1,954개



매출액

**37조
2,442억 원**

수출액

**6조
4,720억 원**

전년 대비 매출액 47.4% 증가,
수출액 34% 증가로 동북아시아
물류의 중심지로서의 면모
를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투자액

3,931억 원

복합물류·운송 산업, 스마트수
송기기 산업, 첨단소재·부품·
장비·바이오·헬스케어 산업과
같은 핵심전략산업으로 경쟁
력 있는 글로벌 투자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생산액

**15조
249억 원**

쿠팡, 파나시아, 성우하이텍
등의 기업과 함께 세계로 뻗어
나가는 성장의 요충지로서, 높
은 생산액과 혁신적인 기술력
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성
장을 이어갑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글로벌 기업·인재 몰려… 기반 시설 조성 ‘착착’

개청 20주년을 맞이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부산과 경남의 외국인 투자와 기업 유치를 위해 설새없이 달려가고 있다. 앞으로도 그간 달성한 성과 이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수치로 알아보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발전

2004년 개청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이후 20년간 첨단산업, 항만물류 등의 산업에서 뚜렷한 성장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산업부 주관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성과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으로는 전국 경제자유구역청 중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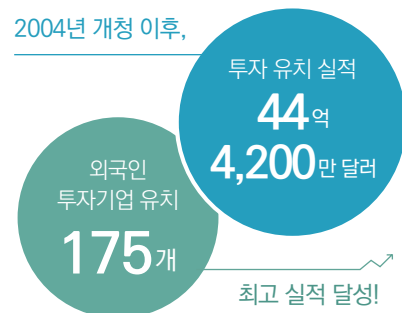
🏗️ 수요 중심의 개발계획, 도로개설 등 기반 시설 조성에 박차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의 강점을 접목한 최적의 개발계획 수립과 개발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구별 개발이 차례대로 이뤄지면서 개발률은 현재 98.7%에 달한다. 5개 지역 22개 지구 가운데 신항북측배후부지 등 13개 지구 개발을 완료했고, 명지지구, 와성지구 등 7개 지구를 개발 중이다. 웅천·남산지구는 현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중이다.

개발률 100%를 앞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동북아 항만물류 거점으로 안정적인 물류량 처리와 구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확대 및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통 기반 시설인 도로개설 사업 역시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최단 거리로 진입·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지역 간 접근성과 연결성을 향상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해 편리하고 안전한 인프라 조성에 나서고 있다.

2004년 개청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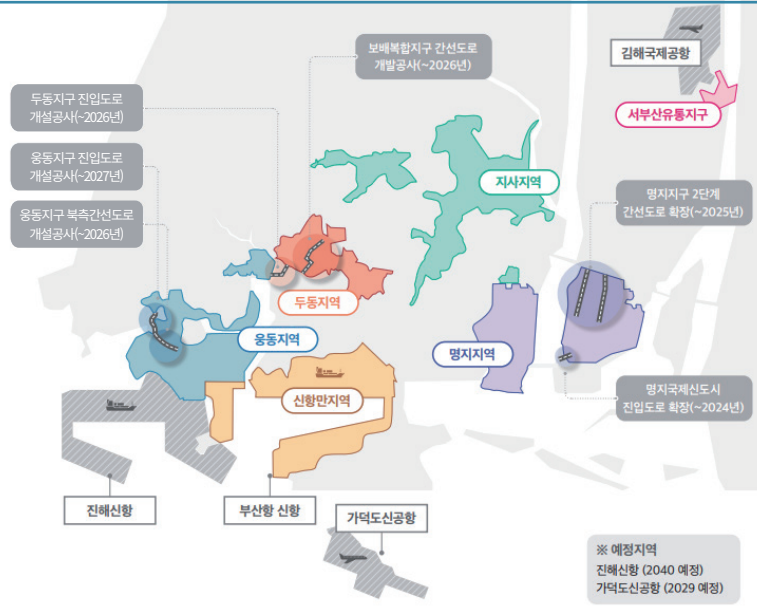


완공도로

- ▶ 소사~녹산간 도로
- ▶ 석동~소사간 도로 등 16개 도로

완공예정

- ▶ 명지국제신도시 진입도로 확장(~2024년)
- ▶ 두동지구 진입도로(~2026년)
- ▶ 보배북합지구 간선도로(~2026년)
- ▶ 명지지구 2단계 간선도로 확장(~2025년)
- ▶ 웅동지구 북측간선도로(~2026년)
- ▶ 웅동지구 진입도로(~2027년)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도로 개설 공사 현황

글로벌 인재를 위한 우수한 정주 환경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만들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고급 인재가 머무를 수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연구개발·교육·의료·교통 등 양질의 환경을 갖춰 고급 인재가 유입되면, 고부가가치 복합물류·첨단부품·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글로벌기업 유치에도 큰 강점이 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곳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명지국제신도시다. 명지국제신도시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최적의 산업과 경영 및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국제 비즈니스의 전진기지를 목표로, 낙동강 하구의 위치적 특성과 결부해 생태 공원을 조성하는 등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도시로 건설 중이다.

또한 명지국제신도시는 국제 업무 시설과 외국 교육 기관, 의료기관, 호텔, 컨벤션 등을 조성해 동북아 중심 국제 업무를 위한 신도시로, 기본생활 시설은 물론 백화점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쇼핑단지 건립이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어 편리한 생활여건을 한층 더 높였다.

대규모 복합 쇼핑단지 조감도 ▶

이렇듯 국제학교와 세계 유수의 R&D센터 조성 등을 통해 남부권에 고급 인재를 공급하는 핵심 인재 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역량을 모아 나가고 있다.

이에 더해 향후 가덕도신공항을 통해 해외에서 유입된 고급 인재가 머무르며 비즈니스와 관광 등을 할 수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여, 남부권 신산업의 메카 및 국제 비즈니스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경제의 新성장축으로 도약!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동북아 물류허브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수한 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략산업과 연계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맞춤형 첨단 신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글로벌 물류 허브로의 힘찬 도약...

콜드체인 물류산업 집중 육성!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물류 수요가 증가하면서 물류산업이 크게 성장했으며, 산업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세계 최고의 물류 교통망 이점을 극대화해 물류+제조, 물류+IT와 같은 고부가 복합물류 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콜드체인 풀필먼트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해 운송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대규모 글로벌배송센터(GDC)를 유치할 계획이다.

지난 2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전국 제조업, 도소매업체 약 1,5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기업물류비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물류비 지출 중 냉동·냉장 등 특정 온도를 유지해 배송해야 하는 정온제품의 물류비 비중이 2016년 7.9%에서 2022년 36.3%로 4.6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온라인쇼핑 시장 확대와 함께 콜드체인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수요가 급증한 영향으로 보인다.

이러한 산업 동향에 발맞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024년 상반기부터 관내 글

로벌 콜드체인 기업을 주축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함께 콜드체인 분야의 기업,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콜드체인 얼라이언스’를 운영하고있다. 이를 통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최적화된 콜드체인 산업을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콜드체인과 밀접한 저온유통, 냉동컨테이너 등 관련 산업 육성도 확대한다.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콜드체인 물류산업의 선도기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신항만 지구



▲ 제3회 BJFEZ 홍보사진 공모전, 은상, 꺼지지않는 불빛, 이성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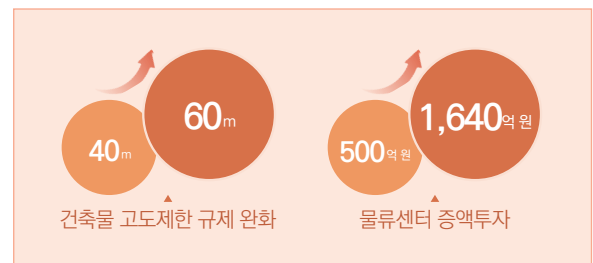
⚙️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 속에서 ‘항만배후단지 고부가가치화’로 돌파구를 찾아

초기의 물류산업이 단순 화물 처리 기능만 했다면, 최근에는 제조, 가공 등 관련 산업들이 확대되며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단순 보관 기능에만 멈춰 있는 물류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을 끌어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먼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미래를 책임질 5대 전략품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트라이포트 인프라, 첨단산업 등 미래 부가가치를 고려한 품목 선정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더해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불필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제가 개선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건축물 고도제한 규제 완화로 물류센터 증액투자 328%를 이끌어 냈으며, 2023년 6월 면적제한 완화로 또 한 번의 규제 완화를 이뤄냈다. 이는 기업의 고부가가치 및 신규 물동량 증가로 이어져 대규모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배후단지 부가물류 활성화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물류부터 가공까지 가능하다면 항만배후단지에 관련 업종이 모일 것이고, 일대가 거대한 산업 클러스터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항만배후단지 내 커피 클러스터를 시작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역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만들어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나가고, 각 지구별 맞춤형 활성화 전략과 산업고도화를 지원해 첨단 신산업 투자 유치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BJFEZ,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에 앞장, 사업장 스마트 안전관리로 ‘부담은 뚫, 안전은 쏙’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기업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이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위한 체계다. 또한 이 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강조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선제적 조치이자,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업장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체계 구축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습득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비용 발생 문제 등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대기업은 자체 준비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관련 정보를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올해부터 직접 중소기업을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했다. 당장 부담을 느끼고 있는 기업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으며, 그 결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올 하반기부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기업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을 지원한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절차상 개별 활동에 대한 증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이 기록은 언제나 열람·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이러한 기록을 담당자가 수기로 작성해 관리하고 있어 기록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은 사업장 내 위험 감소 대책과 안전 점검, 비상시 상황에 대응할 수



▲ 김기영 청장이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모습 1

있는 예방 체계를 클라우드 기반의 웹·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해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시스템이다. 시스템 도입으로 재해사고 예방 및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는 물론 안전보건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 기대된다.

지원사업은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10일간 참여 기업을 모집하였으며, 선정평가를 통해 총 5개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는 ‘스마트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기업별 맞춤 교육을 실시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된 기업들은 프로그램 도입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한 스마트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중대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 지속 가능한 경영 실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요인들을 세심히 살펴, 최상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안전보건 의식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 김기영 청장이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모습 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매출액·수출액 대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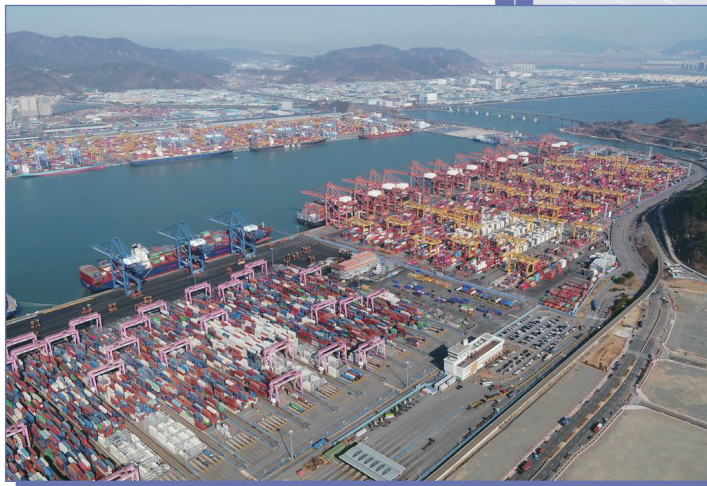
2024년 1월 2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 (외국인 투자 사업체는 1인 이상)를 대상으로 한 '2022년 기준 BJFEZ 사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주사업체 수는 1,954개 사로, 전년 대비 3.2% 증가, 외국인 투자기업 수는 175개 사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으며, 고용인원도 57,972명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특히 매출액 부분에서는 37조 2,4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4% 증가하였고 수출액 부분에서도 6조 4,7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하는 등 전국 경제자유구역 중에서도 매출액과 수출액 부분에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동남권의 수출거점, 경제회복의 전진기지'로 거듭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산업으로는 복합물류·운송 산업, 스마트수송기기 산업, 첨단소재·부품·장비·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이 있으며, 총 사업체 수는 367개 사, 종사자 수는 14,060명, 매출액은 11조 894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 경제자유구역청 공통 조사 항목 외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 애로사항, ESG 경영, 디지털전환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어려움 등을 추가로 조사해 추후 사업 추진에 반영토록 했다.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신행만 지구 모습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2조 원 규모의 와성지구 개발 순항

장기간 표류되었던 개발사업...

결국 2조 원의 대규모 투자 유치 이뤄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와성지구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 변경 등의 문제로 장기간 표류되었던 공유수면 매립 사업 지구였다.

이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단계적 개발, 단계적 건축, 단계적 준공을 통해 가장 큰 걸림돌인 부지 제공 시기를 단계별 시행으로 변경해 장기간 소요되는 개발사업 토지 공급 문제를 해결했다.

그 결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작년 4월 경상남도-ESR캐달스퀘어(주)-경남신항만(주)과 2조 원 규모의 'BJFEZ 와성지구 개발 및 첨단복합물류산업 유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1만 8천여 명의 고용 창출을 끌어낼 글로벌 첨단물류센터 유치에 성공한 것이다. 글로벌 첨단복합물류센터가 완공되면 최고의 물류 플랫폼 거점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와성지구의 현재 개발률은 19%로 2027년 완공 예정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절차를 막힘없이 추진해 나가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글로벌 복합물류 비즈니스 벨트를 중심으로
동북아 최대의 물류 허브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2029년 가덕도신공항과 2040년 진해신항이 완공되면 글로벌 항공 물류 인프라와 메가포트(Mega-Port), 육상 운송 거점이 모여있는 트라이포트(Tri-Port)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

아울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규제혁신 활동의 과제로 복합물류-제조가 가능한 구조 전환을 추진했다. 2023년 11월, 와성지구는 물류 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제조업에 물류업이 추가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산업부에 요청해 와성지구의 유치업종 확대를 얻어냈다. 이렇게 사업의 융복합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와성지구는 직구에서 역직구까지 가능한 첨단 복합물류 거점지구로 변모하는 토대를 갖췄다.

작년에 이러한 와성지구 성과가 2023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규제혁신 최우수 사례로 선정 된 것 등을 규제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와성지구를 중심으로 인근의 보배복합-두동-웅천-웅동을 하나의 '글로벌 복합물류 비즈니스 벨트'로 연결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고자 하는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 글로벌 복합물류 비즈니스 벨트(안)

「BJFEZ 복합물류 활성화 전략품목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2024년 3월 29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복합물류 활성화 전략품목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해 관계부서 공무원과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등 2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향후 세부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글로벌 물류 환경과 항만 산업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복합물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행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고부가가치 복합물류 활성화’라는 비전 아래, 신항 배후단지 잠재력 분석, 5대 전략 품목 도출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규제 요인 발굴 및 개선 방안 제시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부산항은 국내 커피 생두의 약 96%가 유입되는 중요한 관문으로, 2022년 기준 약 17.1만 톤의 커피 생두가 수입되었다. 현재 항만 배후단지 내 대부분의 기업은 생두 보관에 주력하고 있지만, 단순 보관 중심의 물류업으로는 장기적인 경쟁력과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규제를 개선할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용역에서는 항만 배후단지 내 커피 생두를 수입하는 물류 기업이 생두를 직접 로스팅하거나 가공하여 수출할 때 발생하는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및 유관 기관과 협의해 항만배후단지에서 직접 제조·가공을 하기 위한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한편, 커피와 같이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5대 전략 품목을 발굴해 물류와 제조를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논의할 계획이다.



▲ BJFEZ 복합물류 활성화 전략품목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제14회 국제물류산업대전 참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24년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킨텍스(KINTEX)에서 열린 '제14회 국제물류산업대전'(KOREA MAT 2024)에 참가했다.



국토교통부가 후원하고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최하는 제14회 국제물류산업대전은 국내 최대의 물류산업 전문 전시회로, 전시에서는 운송·물류 서비스, 자동화&로봇, 컨베이어벨트 및 냉동트럭·콜드체인 솔루션 등 물류 서비스분야 관련기업 180여 개사가 참가해 800여 개 부스를 통해 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전시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글로벌 첨단·물류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인센티브 및 입지 요건을 홍보하고, 잠재



▲ 국제물류산업대전, BJFEZ 부스 참가 모습

투자기업 발굴을 위해 1:1 맞춤형 투자 상담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투자 유치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 널리 알리고, 실제 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 참가 기업 및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물류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물류산업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Tri-Port⁷

트라이포트란?

3의 뜻을 가진 트라이(Tri)와 포트(Port)를 접목시킨 용어로
해상운송의 접점인 Sea-Port와
항공운송의 접점인 Air-Port,
철도 및 내륙운송의 접점인 Rail-Port를 결합하여
육해공 복합수송체계를 완성시킬 수 있는 복합물류시스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Tri-Port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단순한 경제자유구역을 넘어 항공, 항만, 철도가 교차하는 대한민국 물류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항공

국내외 물류 및 여객 운송의 중추 역할을 하는 김해국제공항과 2029년 개항 예정인 가덕도신공항



항만

2006년 개항한 국내 최대 규모 컨테이너 항구인 부산항 신항과 2040년 개항 예정인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전용 항구 진해신항



철도

부산항 신항과 남부권을 연결하는 신항배후철도, 신항 제1,2배후도로, 웅동-장유간 도로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트라이포트를 기반으로 물류 산업의 급격한 혁신과 성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9년, 남부권 글로벌 관문공항¹ 가덕도신공항이 조성됩니다

사업개요

▲ 사업목적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여객·물류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안전한 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통해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 활성화 등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 사업대상 위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신공항법’이라 함) 제2조(정의)에 명기된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예정지

▲ 사업기간 2024년 ~ 2030년
(2029년 12월 개항 목표로 추진)

▲ 총사업비 13조 4,913억 원

추진방향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으로서 물류 여객 복합 쿼트로 포트(공항-항만-철도-도로)구축



부산항 신항과 연계한 Sea & Air 중심 항공복합물류 등 공항경제권 활성화



BIM, 디지털 트윈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안전한 스마트공항 건설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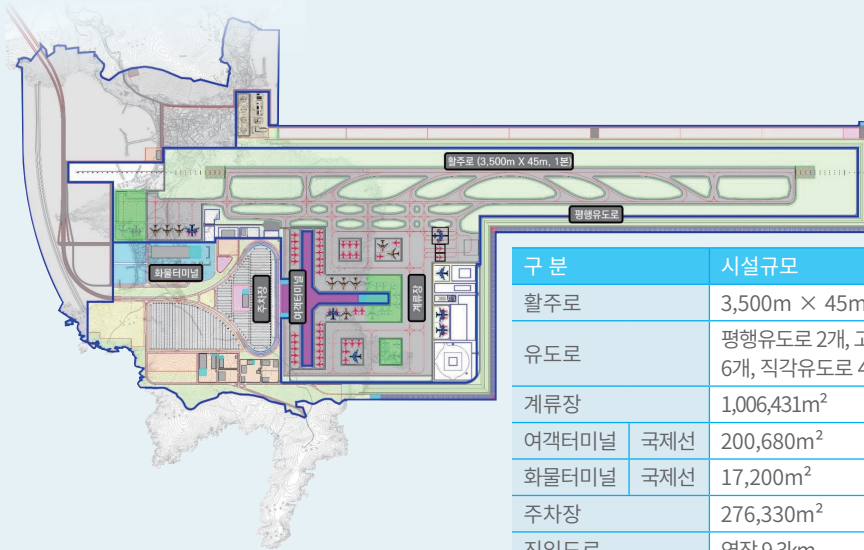
가덕도의 해양생태,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저탄소·친환경 공항 건설

위치도





세부계획



구 분	시설규모	비 고
활주로	3,500m × 45m, 1개	-
유도로	평행유도로 2개, 고속탈출유도로 6개, 직각유도로 4개	-
계류장	1,006,431m ²	58대 주기
여객터미널	국제선	200,680m ²
화물터미널	국제선	17,200m ²
주차장		276,330m ²
진입도로	연장 9.3km	4차로
접근철도	16.5Km	복선
항행안전시설	CAT-II (장래 CAT-II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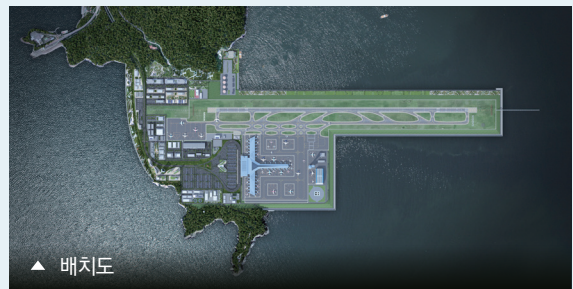
▲ 광역 조감도



▲ 근접 조감도



▲ 야간 조감도



▲ 배치도

BJFEZ 칼럼

미래형 물류·비즈니스 허브 육성을 위한 목표와 과제



동명대학교 국제통상물류학과
우종균 교수

미래 물류·비즈니스 거점의 조건

하버드 경영대학원은 2023년과 2024년을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급변의 시기라고 정의했다. 미·중 무역전쟁 심화, 무력 전쟁 장기화 및 확산,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 저성장 시대의 도래 등 세계 경제, 사회, 정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AI, IoT, Blockchain 등 첨단기술이 빠르게 발전·적용되면서 예상보다 더 빠르게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경제학자와 컨설팅 기관들은 이러한 지속적인 불확실성의 확대는 지난 30년간 세계 경제의 기반이었던 글로벌화(Globalization)의 종료와 함께 신냉전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외교연구센터(CFR)는 글로벌 안보 차원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미국의 항만보안법(Safe Port Act),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등은 엄격한 무역, 물류, 비즈니스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통관기구(WCO)도 공급망 중심의 새로운 국제 통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과 공급망 주체들은 무역, 물류,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데 심각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규정의 변화, 강화는 새로운 무역장벽 또는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장벽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최근 하버드 경영대학원은 글로벌 500대 기업과의 인터뷰를 통해 글로벌 경제질서와 공급망의 변화를 고려한 기업의 미래 투자, 비즈니스 전략을 조사하고 향후, 투자와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 미래 물류·비즈니스 거점의 조건을 제시했다. 이를 정리하면, 미래 물류·비즈니스 거점은 글로벌 해운, 항공 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연결된 항만, 공항, 배후 단지 등 초대형 물류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기술, 비즈니스, 공급망의 변화와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법·제도와 투자,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환경, 보안, 안전, 인권, 보건 등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공급하는 능력도 포함된다.



▲ (자료)우종균, 가덕도신공항 비전 포럼 발표 자료, 2024.04.29



세계는 미래 물류·비즈니스 거점 육성을 위한 치열한 경쟁 중

하버드 경영대학원은 미래 물류·비즈니스 거점은 다양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사람, 돈(금융), 기업, 비즈니스가 집중되는 새로운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싱가포르와 두바이를 미래 물류·비즈니스 거점으로 성장할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선점하기 위해 항만, 공항 등 하드웨어는 물론, 자유로운 투자,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막대한 투자 유치와 부가가치 창출에 성공하고 있다.

파괴적인 제도개선과 혁신 필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이 제시한 것처럼, 대규모의 하드웨어를 갖춘다고 해도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경쟁력 있는 미래 물류·비즈니스 거점으로 성장할 수 없다. 부산은 어느 국가도 하지 못한 파괴적인 제도개선과 혁신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부산이 글로벌기업의 관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투자 대상 지역이며 혁신적인 글로벌 물류, 글로벌 공급망의 거점인지 스스로 평가해 볼 필요성이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혁신을 위한 핵심 키는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이다. 이들 제도는 2000년대 초, 동북아 물류중심화 전략의 5대 과제로 선정·도입되어 물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제·비즈니스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 첫 번째 과제는 투자 환경의 개선이다. 두바이는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고 금융 관련 규제를 모두 철폐했다. 최근, 미국은 글로벌기업과 전문인력이 썬 벨트(Sun Belt)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미국의 경제 지도를 바꾸고 있는데 그 핵심 요인은 바로 혁신적인 투자·비즈니스 환경 개선이다. 두 번째 과제는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의 기능과 역할을 개혁하는 것이다. 많은 한계와 규제를 철폐하고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통합적 관점에서 계획, 개발, 추진, 평가할 수 있는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세계 최고 물류 비즈니스 중심으로 성장하기 위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파괴적인 제도개선과 혁신을 기대한다.





첨단 ICT 기술을 통해 항만물류 첨단화를 향해 나아가다

인터뷰이 쿨스엔씨(주) 김승철 대표

쿨스엔씨(주)는 가볍게 생각하던 컨테이너의 구분을 구체적으로 전산화할 수 있는 '컨테이너 프레임 스테이션'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항구의 입출고 시간을 단축하는데 기여했고, 안전사고의 위험성까지 줄일 수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디지털화를 통해 항만물류의 수출입을 지원하고자 하는 쿨스엔씨(주)의 김승철 대표와 항만물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 쿨스엔씨(주) 회사 전경



▲ 컨테이너 운반하는 모습



▲ 쿨스엔씨(주) 김승철 대표

쿨스엔씨(주)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쿨스엔씨(주)는 항구의 기본이 되는 터미널의 기능을 보완하는 배후단지에 입주해 있습니다. 일반화물이 입고되면 컨테이너 조작이 일어나며 화물의 컨테이너화를 통해 수출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은 컨테이너를 기본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컨테이너를 일반화물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터미널 운영과 수출입에 수반되는 부가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가 저희 쿨스엔씨(주)입니다.

컨테이너 위치관리시스템 앱과 같이 스마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쿨스엔씨(주)에서 개발하는 기술 및 서비스의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대개의 경우 눈에 보이는 컨테이너들을 ‘이렇게 저렇게 쌓으면 되지, 위치는 찾으면 되지’라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컨테이너를 중심으로 해서 화물이 움직이는 컨테이너 프리이트 스테이션(CFS, Container Freight Station)의 경우, 전산화의 시작은 컨테이너 위치 관리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컨테이너의 반출입 등 모든 상황을 전산화할 수 있는 기초를 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출고 시간을 단축해 생산성을 높일 뿐 아니라 매년 5,300만 원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거두었으며, 안전사고 위험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만물류 서비스의 고도화에 대한 의견 있으실까요?

현재 디지털 솔루션이라고 함은 대부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사무자동화 혹은 사무전산화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터미널도 그렇고 배후단지의 물류센터도 그렇고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자동화 솔루션이 필요한 상황이고 앞으로 인구절벽과 같은 사회 변화를 봤을 때 자동화는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쿨스엔씨(주)는 항만물류의 자동화, 첨단화, 기계화 분야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계획이나 앞으로의 운영 계획이 궁금합니다.

저희 쿨스엔씨(주)는 DHL과 같이 첨단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항만물류사업을 첨단화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으며, 또한 DP월드와 같이 자본력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물류 관련 산업에 대해 투자를 진행하는 사업모델도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목표 중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공동물류센터 운영능력은 충분한 자본력과 인프라를 갖춘 회사가 물류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을거라 전망하기 때문에 관련 부분을 더욱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쿨스엔씨(주)가 생각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역할이 있으실까요?

최근에 복합물류 관련해서 민·관의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업을 발굴해 내고 유치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투자유치, 기업지원, 개발사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국내기업을 발굴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내기업을 육성하는 데에 더욱 노력을 기울인다면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관심 있는 기업들에게 추천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부산항 신항의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쿨스엔씨(주)는 2023년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해 기존의 시스템을 보다 고도화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요기업의 작은 아이디어라도 소중히 여기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상담하신다면 성공적인 사업으로 일궈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명근 (주)성우하이텍 회장, 이수태 (주)파나시아 대표, 제15회 동명대상 수상

(주)성우하이텍



투자산업 첨단·제조
업종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주소 부산 강서구 과학산단로333번길 70
대표전화 070-7477-5000
홈페이지 www.swhitech.com

부산과학산업단지

(주)파나시아



투자산업 첨단·제조
업종 선박 구성 부품품 제조업
주소 부산 강서구 미음산단3로 55
대표전화 051-831-1010
홈페이지 www.worldpanasia.com

미음지구

2024년 5월 17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5회 동명대상 시상식에서 이명근 (주)성우하이텍 회장과 이수태 (주)파나시아 대표에게 동명대상과 함께 각각 포상금 1,000만 원을 수여했다.

동명대상은 2008년 부산광역시, 부산상공회의소, BNK부산은행 등이 공동으로 제정한 공익 포상으로, 옛 향토기업인 ‘동명목재’ 강석진 회장의 도전·창의·봉사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상은 그 정신을 이어받아 공익에 기여한 인물들에게 수여된다.

이명근 회장은 1977년 (주)성우하이텍을 설립하여 지난 47년 동안 회사를 부산의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주)성우하이텍은 지난해 연매출 4조 원을 기록하며 그 성과를 입증했으며, 이수태 대표는 선박용 황산화물 저감장치 시장점유율 세계 1위를 기록한 (주)파나시아를 이끌고 있다. 최근에는 수소 추출기 ‘파나젠’을 개발하여 수소 산업에도 진출하고 있다.

(주)BGF 리테일, 부산 신규 물류센터 투자 결정

2023년 12월 12일, (주)BGF리테일은 이사회를 열고 부산에 신규 물류센터 건립을 위해 1,895억원 규모의 시설투자를 의결했다. (주)BGF리테일은 지난 2021년 8월 부산시와 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후 물류센터 건설을 준비했다. 편의점 CU의 효율적인 물류 운용을 위해서이다.

(주)BGF리테일은 공시를 통해 “지속성장을 위한 물류 생산능력(CAPA)을 확보하고 통합화·대형화·자동화 등 물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물류센터는 2026년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내 약 4만 7,000㎡ 규모 부지에 들어설 전망이다. 물류센터가 들어서면 신규 고용창출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 물류센터는 인근 편의점 물류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주)BGF리테일



투자산업 항만·물류
업종 일반창고업
주소 부산 강서구 구량동 1280-5
홈페이지 bgf.recruiter.co.kr

국제산업물류지구



(주)쿠팡, 쿠세권 형성을 위한 전국 물류센터 확장 계획 추진

(주)쿠팡, 7,420억 원 투자하여 신규 물류센터 건설… ‘쿠세권’ 확장 가속화

현재 두동에 전국 4위 규모의 물류센터를 운영 중인 국내 대표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은 ‘쿠세권’ 형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7,420억 원을 투자하여 신규 물류센터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투자금액은 각각 경북 김천 1,000억 원, 광주 2,240억 원, 부산 2,200억 원, 대전 1,800억 원으로, (주)쿠팡은 이번 투자를 통해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물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며 고객들에게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쿠팡 자체 개발 신기술 적극 도입

이번 신규 물류센터는 (주)쿠팡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물류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지어진다. 부산항 신항과 인접한 강서구 국제산업물류지구에 위치해 최고의 물류 교통망이라는 이점을 살린 남부권 거점 스마트물류센터로 짓는다.

쿠세권?

‘쿠세권’은 (주)쿠팡의 신속한 배송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을 의미하는 신조어로, 이번 투자를 통해 더 많은 지역에서 (주)쿠팡의 빠른 배송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주)쿠팡은 지난 2010년 창립 이후 6조 2,000억 원 가량을 전국 물류망 구축에 투자했다. 전국 30개 지역에 ‘캠프’라고 불리는 배송 최종거점을 포함, 100곳이 넘는 물류센터를 세워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전라·경상·제주도 등 로켓배송 권역을 대대적으로 확대했다.



(주)쿠팡

coupang
Take Your Day

투자산업 항만·물류
업 종 일반 창고업
주 소 부산 강서구 구량동 1281-1
홈페이지 www.aboutcoupang.com

국제산업물류지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1,600억 규모의 물류센터 들어선다

2024년 4월 22일, 경상남도 도청회의실에서 글로벌 물류기업 (주)엘엑스판토스신항에코물류센터, DP월드부산로지스틱스센터(주)와 진해신항 서컨 배후단지(1단계)에 스마트물류센터 설립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박완수 경남 도지사, 장금용 창원시 제1부시장,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노승현 (주)엘엑스판토스신항에코물류센터 대표이사, 김도영 DP월드부산로지스틱스센터(주)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주)엘엑스판토스신항에코물류센터는 부산항 신항 배후부지에서 물류사업을 운영중인 LX판토스와 국내 주요 화주기업이 합작하여 설립한 기업이다.

(주)엘엑스판토스신항에코물류센터는 약 1,000억 원을 투자해 진해신항 서컨배후단지(1단계) 12만 5,720㎡ 부지에 스마트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제품을 직접 가공, 조립해 수출하는 고부가가치의 물류센터로 도약할 계획이다.

DP월드부산로지스틱스센터(주)는 UAE 두바이에 위치한 글로벌 항만 운영사인 DP월드그룹에서 설립한 기업으로, 진해신항 서컨 배후단지(1단계) 7만 4,568㎡ 부지에 약 572억 원을 투자하여 스마트물류센터를 구축하고 87명을 신규 고용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를 통해 유럽, 중앙아시아로의 수출 모델 확보와 농식품, 자동차, 산업재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스마트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엘엑스판토스신항에코물류센터 LX판토스

투자산업 항만·물류
업종 기타 분류 안 된 운송 관련 서비스업
주소 경남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303번지(예정)
대표전화 055-540-1307
홈페이지 www.lxpantos.com

 서컨배후단지(1단계)

DP월드부산로지스틱스센터(주) DP WORLD

투자산업 항만·물류
업종 물류업, 일반창고업 등
주소 경남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305번지(예정)
홈페이지 www.dpworld.com

 서컨배후단지(1단계)



(주)동원로엑스냉장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에 위치한 (주)동원로엑스냉장투가 지난 2024년 4월, 공식 개장했다. 2017년 10월에 개장한 동원로엑스냉장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며 IT 신기술을 도입해 시스템을 혁신할 계획이다.

(주)동원로엑스냉장투는 대지면적 15,373평, 연면적 20,523평의 규모로, 공칭톤수 207,282톤, 수용톤수 116,122톤의 영호남지역 최대 규모의 냉장 시설이다. 5층 건물로 구성된 이 시설은 상온, 저온, 초저온 보관이 가능한 60개의 개별 보관실을 갖추고 있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 다양한 화물을 보관할 수 있다.

특히, (주)동원로엑스냉장투는 IT 신기술을 도입해 운송기사들의 대기 시간을 줄이는 WMS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스마트폰을 통해 운송 화물의 배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며, 이는 향후 동종업계에 상향 보편화를 주도할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앞으로의 발전 계획, 즉 진해신항 개장과 가덕도신공항 개장과 함께 (주)동원로엑스냉장투는 육·해·공 운송, 보관, 물류 솔루션을 융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조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로 인해 부산항 신항이 세계적인 항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며,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라는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동원로엑스냉장투



투자산업 항만·물류
업종 일반 창고업
주소 경남 창원시 진해구 신항6로 101
대표전화 070-8899-5716
홈페이지 www.dongwonloexcs.com

웅동배후단지

대학 졸업 후 바로 부산신항만(주)에 입사한 서지현 대리는 올해로 10년차 베테랑 직장인이 되었다.
'이 곳이 평생 직장이지 않을까'라며 스스로의 업무에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자신을 위해 성장을 멈추지 않는 서지현 대리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동북아시아 물류의 중심지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다

부산신항만(주) 게이트팀 서지현 대리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부산신항만(주) 운영부서 게이트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지현입니다. 제 주요 업무는 게이트 프로세스 및 시스템 개선과 프로젝트 진행을 주로하며, 이외에도 세 관 업무를 지원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부산신항만(주)에 입사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으실까요?

전공에 맞는 분야의 업무를 찾던 중 부산신항만(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부산신항만(주)의 가치와 비전에 공감했고, 글로벌 물류와 터미널 운영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업으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곳에서 다양한 국제적 경험을 쌓고 싶어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올해 2월, DPW 쇼케이스 터미널 행사에 저희 팀을 대표하여 5일간 참여하였습니다. DPW의 페루와 두바이 터미널에서 온 직원들과 터미널 운영 프로세스 및 시스템에 대해 공유하며,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페루 터미널에서 저희 터미널의 게이트 반출입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해당 시스템을 벤치마킹 하고싶다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가 가장 보람 있었습니다.



📍 진목카페

부산 강서구 명지새동네길2번길 56-3



부산신항만(주)

투자산업 항만·물류
업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주소 부산 강서구 신항남로 372
홈페이지 www.pncport.com

📍 신항만 지구

부산신항만(주)와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험과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산신항만(주) 내에 다양한 지역의 산업군에서 일하고 있는 내외국인 직원들을 직, 간접으로 만나 다양한 문화와 업무 방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적인 안목을 넓히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회사에서는 직원 개개인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해 체계적인 교육과 커리어 발전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역시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환경이 업무, 혹은 회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 물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인프라와 지리적 위치는 효율적인 물류 관리를 가능하게 하며 구역 내 다양한 산업군과의 협업을 통해 비즈니스 확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인프라를 통해 저희 기업 역시 한단계 더 발전하고, 이러한 발전이 다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근처에 추천해 주고 싶은 맛집이나 카페 등이 있으실까요?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은 명지에 위치한 ‘진목카페’입니다. 노을질 때 쯤 방문하셔서 야외테이블에 앉아 석양과 빛을 받아 반짝이는 잔물결을 바라보며 ‘물멍’을 하고 있으면, 업무의 피곤함이나, 다양한 걱정이 잠시나마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물론 커피와 다양한 베이커리도 아주 맛있구요.

앞으로 개인적으로, 혹은 업무적으로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외국어 역량을 좀 더 강화하여 두바이 본사에 방문해보는 것이 목표이고, 업무적으로는 프로젝트 기획 부문에서 전문성을 강화하여 게이트 프로세스 운영을 좀 더 최적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최고의 물류 중심지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의 경험은 미래에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두려워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도전하시고 즐기며, 목표를 향해 나아 가시길 바랍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산책로 강서구 신호공원

📍 신호공원
부산 강서구 신호동 315-1



바다와 이어진 갈매길 주변으로 울창한 소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길이 인상적인 신호공원.

해돋이 명소와 갯벌 체험장으로도 유명한 신호공원은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찾아온다.

넓게 펼쳐진 바다를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기다 보면 어느새 공원의 끝에 도착한다.



신호공원의 매력은 잘 갖춰진 산책로만이 아니다.

공원 중간에는 가벼운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기구들이 있고, 중심에 위치한 파크 골프장, 축구장 등에서는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공원 옆에는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장까지 있으니, 남녀노소 누구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 적합한 장소이다.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고 싶다면, 신호공원을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옆, 벚꽃이 예쁜 보람공원

📍 보람공원
부산 강서구 송정동 1718



점심시간이 되면 보람공원은 식사를 마친 사람들로 북적인다. 산책을 즐기러 나온 이들 덕분에 공원은 금세 활기로 가득 찬다.

녹산산단 내에 위치해 있는 보람공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육 활동과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으로, 그들이 지역 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하고 있다. 공원 안에는 다양한 운동기구와 풋살장, 농구장 등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초록빛으로 물든 보람공원도 아름답지만, 봄이 오면 이곳은 핑크빛으로 물든다. 벚꽃이 만개하는 계절에는 곳곳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흐드러진 벚꽃 사이에서 여유를 만끽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다.

보람공원 옆을 따라 이어지는 자전거 길도 이 지역의 명소 중 하나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자전거로 달리는 경험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된다. 봄날의 보람공원, 그 특별한 순간을 꼭 한번 느껴보기를 추천한다.



고즈넉한 분위기 속 고소한 커피향 강서구 한옥카페 '다온나루'



‘다온나루’란 좋은 일이 한꺼번에 다 들어온다는 뜻의 순우리말 ‘다온’과 여러사람을 위해 살아가라는 뜻의 순우리말 ‘강나루’의 합성어로, 한국의 전통을 살린 고즈넉한 분위기가 특징인 카페이다.

다온나루는 100% 아라비카 생두로 직접 로스팅한 원두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오랜 노하우를 통해 원두를 관리해 최상급 품질의 커피를 즐길 수 있다. 이 커피는 드립백으로도 판매 중이다.

커피 외에도 쑥이 들어간 다온나루만의 시그니처 메뉴인 웅녀라떼, 수제 오미자차 등 다양한 전통 차와 간식을 즐길 수 있다.



아라비카 원두

단맛과 신맛이 강하고 부드럽고 향기가 뛰어나다.
쓴맛과 자극성이 적고, 마찬가지로 자주 사용되는 원두인 로브스타에 비해 카페인 함량이 낮은 편이다.



📍 다온나루

위 치 부산 강서구 범방3로46번길 21
전화번호 051-832-1771
영업시간 오전 11:00 ~ 오후 11:00



아기자기한 소품과 바다 전망 진해 ‘카페 인더문’

넓은 통창 너머로 탁 트인 바다가 매력적인 카페로, 4층의 테라스에서는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커피를 즐길 수도 있다.

카페 곳곳에 배치된 아기자기한 소품들 역시 이 카페를 둘러보는 묘미이다.

카페 인더문은 직접 원두를 로스팅하진 않지만, 원두 전문가가 직접 엄선한 원두를 배급받아 사용하여 고소하고 산미가 잘 느껴지지 않는 아메리카노가 특징이다. 직접 시럽을 볶아 사용하는 달달한 바닐라빈라떼도 시그니처 메뉴이다.

커피 외에도 유럽 전통 방식으로 직접 구워낸 연유식빵, 메론빵 등 보기만해도 군침이 도는 다양한 베이커리류도 준비되어 있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향긋한 커피, 달달한 디저트와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즐겨보는건 어떨까.



☞ 카페 인더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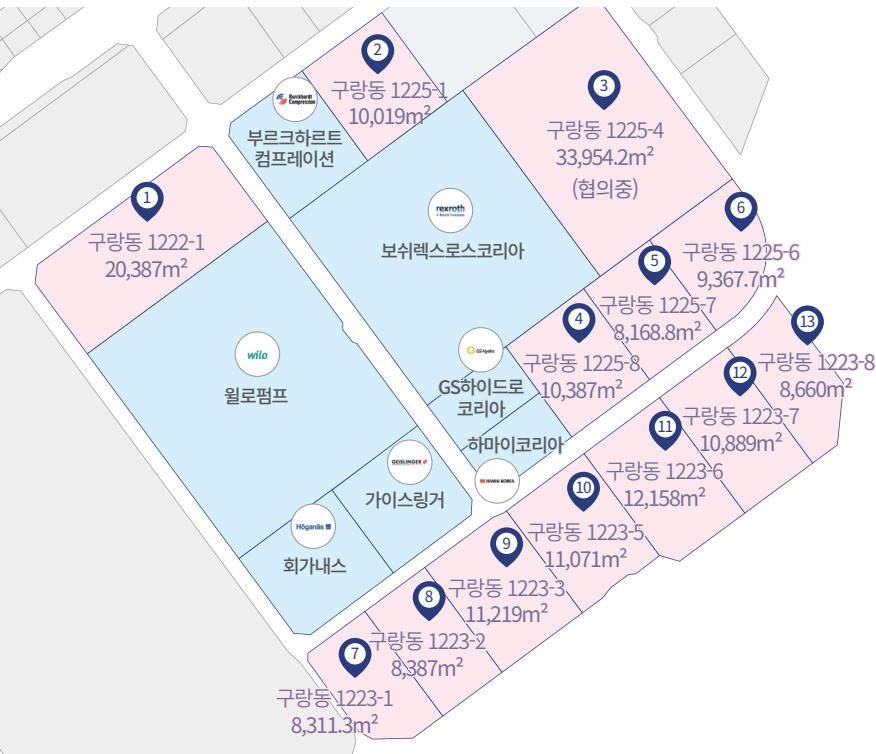
위 치 경남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472번길 18

전화번호 055-607-8102

영업시간 오전 10:30 ~ 오후 10:00

BJFEZ 잔여 부지 한눈에 보기

첨단제조



입주가능 입주완료

미음 외국인투자지역

위 치 부산 강서구 구랑동
 총 면 적 299,584m²(90,783평)
 입주업종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수반사업, 첨단기술 및 제품생산 업종, 부품·소재 업종 등 첨단산업
 토지이용 건폐율 80%, 용적률 350%

보배복합지구

- 대한민국 최초 고부가가치 스마트물류 연구개발 단지 조성 계획
- 진해신항·가덕도신공항까지 10분, 인근 첨단 생산시설과 물류단지와 연계한 스마트 복합물류 연구거점

연구개발

스마트물류 연구개발 및 인재양성

면 적 84,910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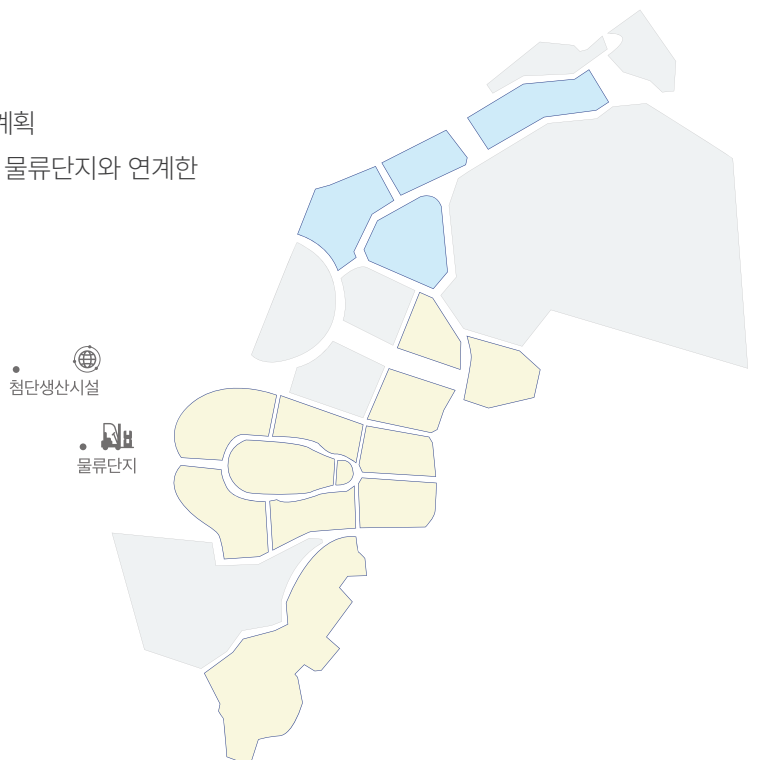
입주업종 항만·물류 R&D, 항만·물류 교육지원시설, 스마트팩토리 연구소

첨단제조

미래산업 앵커기업 및 혁신성장 기업 유치

면 적 235,780m²

입주업종 전자부품, 통신장비, 정밀·과학기기,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





입주가능 입주완료

지사 외국인투자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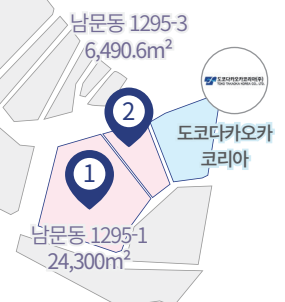
위 치 부산 강서구 지사동
 총 면 적 298,142㎡(90,188평)
 입주업종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수반사업, 첨단기술 및 제품생산 업종,
 부품·소재 업종 등 첨단산업
 토지이용 건폐율 80%, 용적률 350%



입주가능 입주완료

남문 외국인투자지역

위 치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총 면 적 71,271㎡(21,597평)
 입주업종 메카트로닉스, 조선·자동차 부품, 기계제조업 등
 토지이용 건폐율 70%, 용적률 400%



복합물류



입주업종 물류업, 제조업

입주자격 국내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추천업종 화물 운송업(육상·항공·철도), 국제물류주선 서비스업,
식품 의약품 콜드체인, 농축산물 제조·가공업

① 웅동배후단지(2단계) ▶ 분양



550,196m²

분양면적 550,196m²

입주업종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토지이용 건폐율 70%, 용적률 300%

분양공고 협의중

입주시기 2027년

② 남컨배후단지(추진중) ▶ 임대



1,161,000m²

조성면적 1,161,000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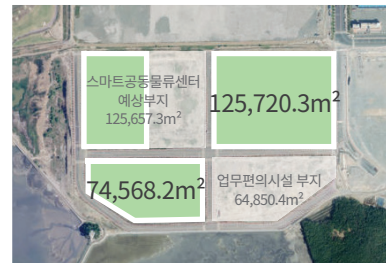
입주업종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토지이용 건폐율 70%, 용적률 300%

임대공고 협의중

입주시기 2025년

서컨배후단지(1단계) ▶ 완료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예상부지
125,657.3m²

125,720.3m²

74,568.2m²

업무편의시설 부지
64,850.4m²

분양면적 200,288.5m²

입주업종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토지이용 건폐율 70%, 용적률 300%

임대공고 2023년 9월(완료)

입주시기 2024년

명지국제신도시

-
- Map of Gyeongju Science Town (경주사이언스타운) showing various facilities and their locations:
- 낙동강아트홀(2023)
 - 국민체육센터(2027)
 - 외국교육 연구센터
 - 의료 헬스케어
 - 오피스
 - 신라스테이
 - SA Geo Lab 지질공학테스트연구소(2023)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주거단지
 -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코리아 R&D센터 IDC(2024)
 - 테샛트신발 R&D 센터
 - 첨단 R&D 센터
 -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공모완료)

면 적 협의가능

입주업종 AI(인공지능), 스타트업, IOT(사물인터넷), 벤처캐피탈, 공유오피스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 QR코드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식 SNS 바로가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Busan-Jinhae Free Economic Zone